

박세리 “코닝클래식은 내 텃밭”



박세리가 9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우즈 골프 클럽에서 벌어진 제이미 파 오우인즈 코닝 클래식 연습 라운드중 3번째 홀에서 티오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구 왼손잡이 유리”

美 워싱턴대 피터스 교수 주장

“좌타자 타격 후 진루 더 빨라”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왼손잡이가 소수인데다 살아가는 데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적어도 야구에서만은 다른 모양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대학교 데이비드 피터스 공학교수는 최근 교내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야구에서는 왼손잡이가 분명히 이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이 10일 전했다.

피터스 교수는 “인구의 90%가 오른손잡이지만 야구의 경우 전체 선수의 25%가 왼손잡이”라면서 “야구에서 왼손잡이는 분명히 이점이 있다.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주 쿠파스타운 소재 야구 명예의 전당이 헌액된 선수들에 대해 최초로 통계를 내봤다.

헌액된 투수 61명 중 13명(21%)이 좌완이었다. 타자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야수 중 오른손 타자는 71명인데 비해 좌타자는 5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타격에서 이점을 펼친 이가 많았다. 베이브 루스, 테드 윌리엄스, 타이 콧, 스탠 뮤지얼, 배리 본즈 그리고 조지 브렛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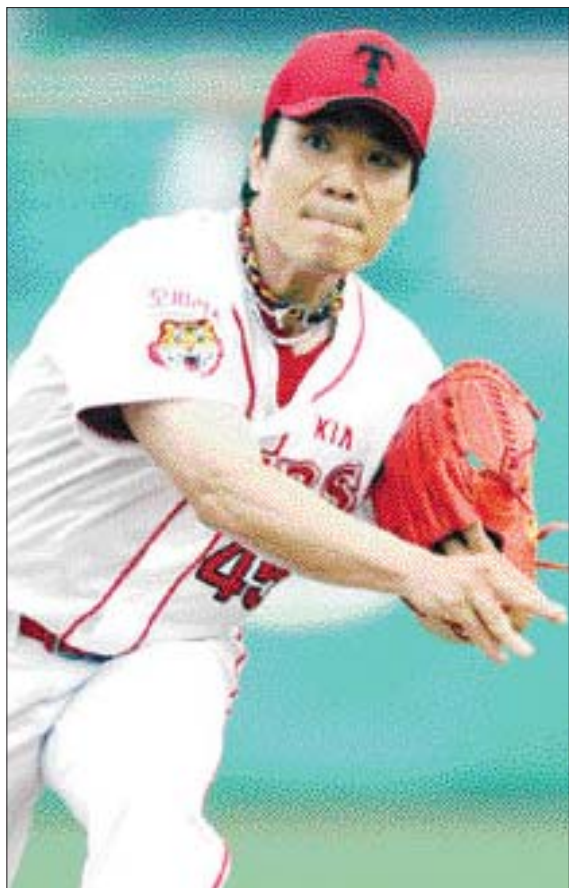
피터스 교수는 좌타자가 타격 후 1루로 뛰도록 돼있는 야구경기 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우타자는 스윙을 하고 나면 몸이 3루쪽으로 돌아가 1루로 뛰려면 방향을 바꿔야 하지만 예초부터 타석에서 우타자보다 1루쪽으로 5피트(약 1.5m) 가깝게 서있는 좌타자는 스윙 후 자연스럽게 몸이 1루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뛰어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는 좌타자가 우타자보다 6분의 1초 1루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백차승 3승 사냥 실패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백차승(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홈런 두 방을 허용하며 3승 사냥에 실패했다.

백차승은 10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플로리다 말린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출장, 5이닝동안 3실점을 허용한 뒤 5회말 자신의 타석 때 교체됐다. 팀은 2-5로 졌고, 백차승은 패전투수가 되면서 시즌 성적은 2승5패가 됐다.

백차승은 5회까지 삼진을 3개 잡아냈지만 홈런 2방을 포함해 6안타와 1볼넷으로 3점을 허용하면서 시즌 방어율도 전 경기까지 4.93에서 4.97로 다소 높아졌다.



이대진

KIA는 7월 윤석민-이대진-이범석-디아즈-데이비스로 이어지는 새 선발진 구축과 더불어 평균자책점 6.14를 보이고 있는 타선의 상승세로 9일까지 5승2패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7월 마지막 반격을 이끌고 있는 선발 투수들은 중간계투진의 위태로운 투구에 속 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9일까지 7경기에서 KIA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1.96, 반면 선발 투수를 구원해야할 구원투수들은 23이닝 동안 10실점을 해 평균자책점이 3.91에 이른다.

9일 현재 7월 3경기에 등판해 6과 3분의 2이닝을 실점 없이 깔끔하게 정리한 마무리 한기주를 뺀 순수 중간계투진의 평균자책점은 5.51까지 치솟는다. KIA는 선발과 마무리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승리를 이어줄 선수가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 시즌 유난히 승운이 따르지 않았던 이대진은 9일 선

KIA 마운드 ‘허리’ 부실 선발진 괴롭다



‘승리를 이어줄 구원투수 부재’ 지난 9일 KIA타이거즈가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5위 탈환을 눈앞에 두고 볼펜의 난조로 4-7로 역전패를 당했다. 올 시즌 첫 6연승도 수포로 돌아갔다.

7월 중 (9일까지) 평균 자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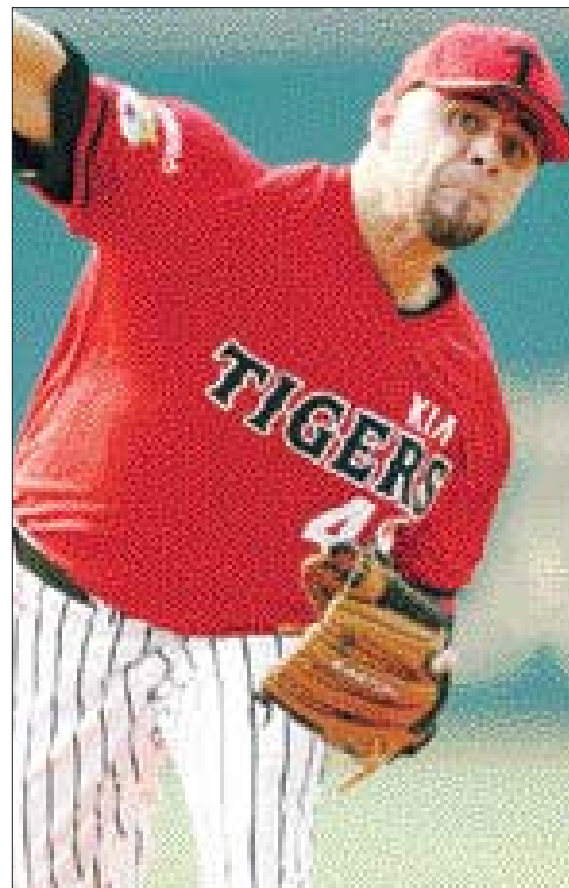
선발진 1.96, 구원 3.91 격차 커

계투진 선전 여부 4강행 변수

바로 나서 5이닝을 4피안타 1실점으로 막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대진은 신인 나지완의 투런포에 힘입어 4-1의 상황에서 후배 임준혁에게 마운드를 넘겨줬지만 채 2이닝도 지나지 않아 전세가 역전되고 말았다. 임준혁은 6회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안타와 볼넷을 내준 뒤 4-3으로 가까스로 6회를 막았다. 7회에서도 연속안타로 얻어맞았다.

야수선택에 어리숙한 수비까지 겹치면서 4-6으로 경기가 뒤집혔고, 팀의 6연승과 이대진의 통산 97승은 날아가고 말았다.



데이비스

지난 6일 삼성과의 대구 경기에서 첫 선을 보인 KIA의 허든카드 용병 데이비스도 데뷔전에서 속kena 때렸다.

첫 등판에서 151km의 직구를 던지며 KIA 강속구 대열에 합류한 데이비스는 192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직구와 타자들을 현혹시키는 슬라이더로 6이닝 2피안타 4탈삼진 1실점으로 켈리타 스타를 끊었지만 데뷔전 승리를 꾀하는 못했다.

7회 3-1의 상황에서 볼펜으로 자리를 옮긴 데이비스는 구원 등판한 손영민이 연속안타를 맞아 3-3동점을 허용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반면 이범석, 윤석민은 두 차례 완투 끝에 2승을 이끌며 볼펜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중간계투진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선발진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1승이 급한 KIA에 구세주 같은 구원투수의 등장이 절실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 우즈 소득 2010년 1조 돌파”

美 포브스지 보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벌어들이는 돈이 2년 뒤인 2010년에는 운동선수로는 처음으로 10억달러(약 1조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잡지 포브스가 10일(한국 시간) 발표한 ‘유명인 소득 100위’에 따르면 우즈는 1억1천500만달러로 운동 선수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절반 수준인 6천500만달러를 번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LA갤럭시)이었다.

포브스는 우즈의 소득에 대해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10억달러를 돌파한 운동선수 가운데는 스위스의 갑부인 요트 챔피언 에네스토 베르탈리가 있지만 그는 돈이 많아 요트를 한 것이 우즈처럼 운동을 해서 돈을 번 것과는 다르다. 즉 현역 운동선수로서 처음으로 누적 소득 10억달러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까지 우즈가 벌어들인 소득은 7억5천만달러 이상인데 2010년까지 앞으로 1년 반 동안 10억달러 돌파가 충분하다는 것이 포브스의 예상이다. 이는 우승 상금 뿐만 아니라 우즈가 대기업과 후원계약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키, 뷰익, 질레트 등과 계약이 수익의 90%를 차지하는 우즈는 올해에만 9천만달러를 벌었다.



박인비, SK텔레콤과 후원계약

US여자오픈골프대회를 제패한 박인비(20)가 후원자를 얻었다.

박인비는 10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SK텔레콤 T타워에서 SK텔레콤과 2년간 후원 계약을 맺었다. 세부적인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밝혀지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박인비를 포함해 최나연, 홍순상, 최진호 등 프로골프 4명을 후원하게 됐다.

김성철 SK텔레콤 스포츠담당장은 “1998년 박세리가 US여자오픈에서 맨해튼의 투혼으로 우승하면서 경기위기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던 감동을 10년만에 다시 보여준 박인비의 투혼과 열정을 높이 사 후원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호랑이 ‘지옥의 9연전’ 넘어라

위기에 빠진 삼성을 넘어야 4강 턱걸이가 가능하다.

KIA는 지난 주말 대구 원정 3연전을 싸늘이하며 9일 현재 5위 삼성 라이온즈를 반 계입차로 쫓고 있다.

KIA의 대 삼성 전적은 7승 4패, 10일 경기를 끝으로 한화와의 올 시즌 경기를 모두 마무리 지은 KIA는 삼성과는 7차례의 대결을 남겨두고 있다.

계막 2연전 삼성에 연패를 당하며 올 시즌을 시작했던 KIA는 지난 4일 이범석의 완봉승을 시작으로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삼성을 발판으로 밀어 올려 4강 희망도 되살렸다.

KIA는 11일부터 SK, 롯데와의 원정경기에 이어 두산과의 홈경기를 치른다. 순돌릴 틈 없는 강팀들과의 지옥의 9연전 이후에는 삼성과의 3연전이 기다리고 있다.

지옥의 9연전 승률에 따라 22일부터 시작되는 삼성과의 홈 3연전은 4강 굳히기, 또는 마지막 4강 불씨 살리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옥 9연전에서 5할이 넘는 승률을 올린 후, 삼성 3연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삼성전 15이닝 무실점 행진을 하고 있는 ‘삼성 킬러’ 이범석이 버티고 있는데다 선수들도 심리적으로 삼성에 강한

오늘부터 SK·롯데·두산 등 강팀 상대 최소 5할 이상 승률 올리면 4강행 가능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망은 밝다.

삼성 9일 현재 7월 전적이 2승 5패로 저조하다. 지난 달에도 6.63의 평균자책점으로 마운드가 붕괴돼 8승15패로 고전했던 삼성은 투수진의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아 슬럼프가 길어지고 있다.

타선에서는 젊은 선수들이 새로 자리를 잡았지만 경험 부족이 눈에 띈다.

KIA로서는 뚜렷한 전력 상승 요인이 없는 삼성이 4강행 또는 상위권 진입의 저물인 셈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